

# 노은(老隱) 임적(任適)의 유기(遊記) 연구

- 1709년 유람 관련 작품들을 중심으로 -

유정열\*

- I. 들어가는 글
- II. 임적의 생애와 산수유람
- III. 새로운 승경에 대한 조명
- IV. 승경의 문화적 가치 부각
- V. 마치는 글

## <국문초록>

본고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임적(任適)의 문학을 1709년 유람을 바탕으로 창작된 유기들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임적은 이종사촌 형 홍태유(洪泰猷)의 영향 아래 산수유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홍태유의 제안과 김창흡(金昌翕)이 새로 건립한 설악산 정사(精舍)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1709년 가을에 설악산 등지를 유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작품들을 고찰한 결과 임적의 유기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임적이 설악산의 십이폭동(十二瀑洞)과 홍천(洪川) 부근에 있는 낙수암(落水巖)처럼 당시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곳의 경우 그곳들의 산수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둘째, 막 건립되어 아직 조명되지 못한 삼연정사(三淵精舍; 영시암永矢菴)의 경우 산수미는 물론 문화적 가치까지 갖춘 승경으로 부각시키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핵심어: 임적, 설악산, 십이폭동, 낙수암, 삼연정사[영시암], 홍태유

## 1. 들어가는 글

본고의 연구 대상인 임적(任適, 1685~1728)은 미지의 인물에 가깝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 유명한 임성주(任聖周, 1711~1788)와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이 바로 임적의 자녀인데 그간 그는 주로 이들을 비롯한 자녀들과의 관련 속에서 언급되곤 했다. 한편 주변 문인들과의 관련 속에서 그의 이름과 시문들이 간간히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적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려지는 데서 그칠 만한 인물은 아니다. 특히 임적은 한명의 문학가로서 조명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갖춘 인물로 일컬어졌으며,<sup>1)</sup> 그의 문학은 “산문이 웅장하면서도 전아하여 양한(兩漢: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의 경지에 육박했다. 시 또한 담박하면서도 호탕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sup>2)</sup>

임적의 문학은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다만 동시대 문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유기(遊記)인 <동유일기(東遊日記)>, <한계폭포기(寒溪瀑布記)>, <유삼연정사기(遊三淵精舍記)> 및 의론문(議論文)인 <축성의(築城議)> 등의 존재와 내용이 알려진 바 있기는 하다.<sup>3)</sup>

본고는 일단 산문 연구를 통해 문학가 임적의 면모를 조명하고자 한다. 임적의 문집인 『노은집(老隱集)』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권부터 4권

1) “任氏世著文藁, 父適判官, 伯叔選參奉, 季叔逸, 文筆俱超群.”(李奎象, <文苑錄>, 『18세기 조선 인물지: 并世才彥錄』, 창작과비평사, 1997, 265면) 인용문은 임적의 아들 임경주(任敬周, 1718~1745)를 소개하는 부분에 실려 있다.

2) “爲文汪洋典雅, 駸駸兩漢. 詩亦澹宕.”(宋明欽, <墓誌銘>, 『老隱集』附錄, 한국문집총간 속 66, 423면) 이하 『노은집』 수록 글의 인용면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3) 대표적인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세호, 『설악산 십이폭포를 찾아서』, 『문헌과 해석』 제83집, 태학사, 2018, 56~57면; 김세호, 『조선시대 설악산 대승폭포의 문화사』, 『인문과학연구』 제6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14~15면; 김풍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의 구성과 탄생: 설악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1집, 동아시아고대회, 2013, 355~356면; 유정열, 『耐齋 洪泰猷 산문의 주제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184집, 한국어문고육연구회, 2019, 369~370면; 유정열, 『홍태유(洪泰猷)의 <유설악기(遊雪嶽記)> 연구』, 『국문학연구』 제41호, 국문학회, 2020, 124면 등; 이경수, 『설악산 대승폭포의 한시 표현』, 『인문과학연구』 제6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48~49면; 이승수, 『三淵 金昌翁 研究』, 이화문화출판사, 1998, 22~24면; 허남욱, 『조선시대 雪嶽山 遊山記의 개괄적 검토』, 『한문고전연구』 제30집, 한문고전학회, 2015, 349면. 한편 『동유일기』의 경우 권혁진·홍하일·최병현·허남욱 편역, 『조선 선비, 설악에 들다』, 문자향, 2015, 118~125면에 설악산 유람 관련 부분이 번역되어 수록되기도 했다.

까지가 산문을 수록하고 있다. 권의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는 서간문(書簡文), 서발문(序跋文), 기문(記文), 의론문, 제문(祭文), 신첩(申牒) 등 다양한 종류의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본고가 첫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유람과 관련된 작품, 특히 유기이다. 그 이유는 그의 산문 중에서 가장 정체를 발하는 것이 일련의 유기들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겠거니와 <동유일기>, <유삼연정사기> 등의 작품이 설악산을 비롯한 해당 승경과 관련해 기념비적인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일단 임적이 산수유람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그의 유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이후 임적이 어떠한 승경들에 특별히 주목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의 유기들을 고찰할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임적이 조선후기 문학가 중 한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임적의 생애와 산수유람

일단 임적이 어떠한 인물인지부터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sup>4)</sup> 임적은 자가 도연(道彦)이고 호가 노은(老隱)이며 본관은 풍천(豊川)이다. 그의 증조부인 임의백(任義伯, 1605~1667)은 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조부인 임승(任陞, 1645~1670)과 부친인 임사원(任士元, 1666~1702)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했다. 모친은 이정영(李正英, 1616~1686)의 딸이다.

임적은 1685년 한양 반송방(盤松坊)에서 출생했다. 그는 1710년 진사시에 합격하지만 기본적으로 당과갈등이 격화되고 있던 당시 중앙 정계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듯하다. 이로 인해 일단 청풍(淸風: 지금의 충청북도 제천시) 노은곡(老隱谷)으로 낙향한다.<sup>5)</sup> 그곳에 거주하던 중 몇 차례 대과(大

4) 이하 서술하는 임적의 가계와 생애는 宋明欽 <墓誌銘>, 『老隱集』 附錄, 423면; 任聖周, <先考 威興府判官府君行狀>, 『鹿門集』 卷25, 한국문집총간 228, 529~530면을 참조해 정리한 것이다. 이하 『독문집』 수록 글의 인용면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5) 이와 관련해 당시 임적이 낙향하며 지은 시의 다음 구절을 참조할 수 있다: “自歎時危謀避地, 一生虛讀世間書.”(任適, <自宗安向淸風路中口占>, 『老隱集』 卷1, 367면)

科)에 응시하지만 합격하지는 못한다. 아울러 이때 인근에 살고 있던 권상하(權尙夏, 1641~1721)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

1718년 임적은 음직인 장릉전참봉(長寧殿參奉)을 제수 받으며 관계에 진출한다. 이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 및 양성현감(陽城縣監), 함흥판관(咸興判官) 등을 역임했다. 함흥판관으로 있을 때는 지역 백성들에게 공물을 과도하게 거두는 폐단을 없애기도 했다. 그런데 역시 함흥판관으로 있던 1727년 무고한 탄핵을 받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게 된다.<sup>6)</sup> 이후 온 가족을 이끌고 청주(淸州) 옥화(玉華)로 이주하려 했으나 병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728년 한양 송현(松峴)에서 생을 마감한다.

임적이 신수 유람을 가장 활발하게 다녔던 것은 20대 시기로 보인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시기는 20대 중반 무렵이다. 임적은 24세 되던 1708년부터 선산이 있던 여주에서 모친을 모시며 몇 년간 거주했다.<sup>7)</sup> 당시 여주에는 이종형인 홍태유(洪泰猷, 1672~1715)가 한양에서 이주해 살고 있었다.

임적의 삶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홍태유의 관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태유도 한양 출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한양에 있을 때부터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을 직하다. 임적과 홍태유는 일반적인 사촌 관계를 넘어서는 매우 각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적은 홍태유를 두고 “나는 공(公)의 권장 덕분에 향상된 바가 있었으니 (공은 나의) 스승이기도 했다”라고 한 바 있다.<sup>8)</sup> 실제로 이에 상응하게 홍태유는 임적의 시문을 읽고 그의 시문을 두보(杜甫)와 구양수(歐陽脩)의 것에 견주며 그 문학적 성취를 격려해 주었다.<sup>9)</sup> 그리고 두 사람은 축성(築城)과 같은 현실 문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또한 여주에 함께 거주하던 때에는 인근에

6) 임성주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有一妓私以官事訴使星, 公怒答之. 使星嗾之, 噉臺官誣以他事論彈. 公以士大夫重廉恥, 不可以上之不允而苟安也, 遂棄歸, 丁未八月也.”(任聖周, <先考咸興府判官府君行狀>, 『鹿門集』 卷25, 530면)

7) “余家丘墓在驪江, 而公結廬於驪江之濱, 以公之在是也, 謂可以相依賴. 歲戊子, 奉慈親以往, 公甚樂也. (….) 未數歲, 余奉親而歸京第.”(任適, <祭耐庵文>, 『老隱集』 卷3, 399면)

8) “余以公獎進而有所進爲師.”(任適, <祭耐庵文>, 『老隱集』 卷3, 399면) 아울러 다음 기록도 참조할 할 만하다: “任判官適, (….) 以公姨弟, 少從公負笈.”(洪晉猷, <遺事>, 『耐齋集』 附錄, 한국문집총간 187, 101면) 이하 『내제집』 수록 글의 인용면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9) “公, (….) 每一文成曰: ‘似歐陽子.’ 每一詩出曰: ‘似杜工部.’ (….) 寧復以我爲似於歐與杜耶? 特欲勉我.”(任適, <祭耐庵文>, 『老隱集』 卷3, 399~400면)

10) 홍태유 또한 임적과 마찬가지로 <축성의>라는 동일한 제목의 작품을 남겼다. 이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인들과 문회(文會)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sup>11)</sup>

임적이 산수 유람을 가장 활발하게 다녔던 것도 여주에 거주했을 때로 보인다. 그는 일단 1708년에는 사군(四郡: 청풍淸風·제천堤川·단양丹陽·영춘永春)을 유람했다. 그리고 1709년 가을에는 설악산 유람을 떠났던 것이다.<sup>12)</sup> 현전하는 임적의 유기는 모두 이 1709년 유람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유람이 그의 삶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 경험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13)</sup>

그런데 이 유람을 모두 함께 한 인물이 바로 홍태유였다. 부친이 정쟁에 휘말려 사사되는 아픔을 겪은 홍태유는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산수 유람에 몰두했다.<sup>14)</sup>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유람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적이었던 것이다. 임적은 홍태유를 위해 지은 제문(祭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공이 유람을 떠나면 내가 그중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없으면 공 또한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금강산(金剛山) 정상에 오르고 묘향산(妙香山)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것, 태백산(太白山)에 오르고 지리산(智異山)을 찾아가 바닷가를 굽어보고 강의 근원을 끝까지 찾는 것, 이것이 공과 내가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나 또한 산수 유람할 마음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군과 설악산을 유람했던 것은 전생의 일처럼 아득히 느껴지

---

서로의 합의 아래 축성 문제와 관련한 작품을 짓고 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추정하게 해 준다. 이러한 추정 및 홍태유의 작품에 대한 분석은 유정열, 앞의 논문, 2019, 367~371면 참조.

- 11) 그 사실은 다음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公鄉居以後, (….) 里中有親戚士友之家, 日常不期而會者十數人. (….) 遂約與爲文會之稷, 一月三會. 會之日, 輒輪講以古聖賢之書. 講訖, 又各進雜詩文五六首, 以課其工拙.”(洪晉猷, <遺事>, 『耐齋集』附錄, 99~100면); “自余之生二十五年而後, 始爲此會, 誠若有物導之矣, 豈天將憐余之志, 而使以是成其才耶.”(任適, <文會序>, 『老隱集』卷2, 376면) 첫 번째 글에서 “公”은 홍태유를 이른다.
- 12) “公喜山水, 與朴兄質甫氏諸人遊四郡, 而余隨之, 與李振伯, 洪受甫遊雪嶽, 而余又隨之.”(任適, <祭耐庵文>, 『老隱集』卷3, 309면) 한편 사군 유람이 1708년에 이루어진 사실은 홍태유의 『내재집』 권1 수록 관련 시들을 통해, 설악산 유람이 1709년에 이루어진 사실은 임적의 <동유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 13) 이 밖에 임적은 1710년 가을 청풍으로 낙향하며 혼자 속리산을 유람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노은집』 권1에 수록된 <懋俗離大法住寺, 寺甚壯而僧徒甚殘>, <夜宿佛法住寺淸風寮> 등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 14) 유정열, 앞의 논문, 2019, 353~355면 참조.

고,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산을 유람하지는 약속은 이제 내세어나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sup>15)</sup>

인용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임적이 홍태유의 ‘유람 메이트’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홍태유의 죽음 이후 산수 유람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증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임적이 산수 유람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홍태유와의 교유가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적이 여주 거주 시기에 산수에 관심을 갖고 유람을 활발히 다녔던 데에는 홍태유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공은 산수를 좋아했는데 (…) 설악산 유람을 했을 때도 내가 따라갔다”라고 증언한 것을 통해 보건대 1709년 유람도 기본적으로는 홍태유의 제안을 받고 함께 떠났을 터이다.<sup>16)</sup>

그러나 임적이 오로지 홍태유의 제안 때문에 이 유람을 떠난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이 유람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이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다. 설악산에 은거하고 있던 김창흡은 그즈음 새로운 정사(精舍)를 완공했다. 김창흡이 임적의 시를 보고 높게 평가했다는 증언이 있는 것을 보면 김창흡과 임적 사이에는 교류가 있었던 듯하다.<sup>17)</sup> 두 사람은 인척 관계였던바 이것이 교류의 매개가 되었을 수 있다.<sup>18)</sup> 임적이 김창흡의 새로운 정사를 방문하고 지은 <유삼연정사기>에는 그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이 배어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평소 김창흡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을 품고 있던 임적은 새로운 정사의 완공을 계기로 삼아 그의 은거지를 둘러볼 마음으로 이 유람을 떠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유람의 경우 김창흡의 존재가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임적의 기록들에 김창흡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두

15) “公有遊，余未嘗不在其中，而無余則公亦不樂。蓋將登金剛之巔，入妙香之邃，上太白而搜智異，臨海濱而窮江源，此公之與余期者，而公今已亡，余亦無意於山水矣。四郡雪嶽之遊，漠然若前世事，而金剛諸山之約，已付之他生矣。寧不悲哉！寧不悲哉！”(任適, <祭耐庵文>, 『老隱集』 卷3, 399면)

16) “公喜山水，(…)遊雪嶽，而余又隨之。”(任適, <祭耐庵文>, 『老隱集』 卷3, 399면)

17) “詩則專學杜甫而兼取簡齋，典雅澹宕，格力閒肆，三淵子見而亟賞。”(任聖周, <先考咸興府判官府君行狀>, 『鹿門集』 卷25, 531면) “簡齋”는 남송(南宋)의 시인 진여의(陳與義)를 이른다.

18) 김창흡의 사촌형인 김창국(金昌國, 1644~1717)이 임적의 이모부가 된다.

사람이 만나지는 못한 듯하다.

지금부터는 당시 유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유람에는 임적과 홍태유 외에 홍익보(洪益普, 1660~1736)와 이진백(李振伯)이라는 두 명의 인물이 더 참여했다.<sup>19)</sup> 홍익보는 홍태유의 종인(宗人)이고,<sup>20)</sup> 이진백은 홍태유의 종질(從姪)이다.<sup>21)</sup>

다음으로 유람의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여정은 임적의 <동유일기>를 통해 재구할 수 있다. 그 여정을 날짜별로 대략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여정
9월 1일	이호(梨湖) → 화곡(花谷)
9월 2일	화곡 → 지평(砥平) → 홍천(洪川)
9월 3일	홍천 → 천감역(泉甘驛) → 신현촌(新峴村)
9월 4일	신현촌 → 만의역(萬宜驛) → 인제(麟蹄)
9월 5일	인제 → 합강정(合江亭) → 원통역(圓通驛) → 삼차령(三叉嶺) → 난계역(亂溪驛) → 갈역(葛驛)
9월 6일	갈역 → 심원사(深源寺)
9월 7일	심원사 → 십이폭동(十二瀑洞) → 봉정암(鳳頂庵)
9월 8일	봉정암 → 세존탑(世尊塔: 봉정암 오층석탑) → 대장경암(大藏經巖) → (가야동계곡) → 폐문암(閉門巖) → 입암(笠巖) → 김삼연신사(金三淵新舍: 영시암永矢庵) → 심원사
9월 9~10일	비가 내려 심원사에 유숙.
9월 11일	심원사 → 대령(大嶺: 대승령大勝嶺) → 대승암(大乘庵) → 자연대(紫烟臺) → 한계폭포(寒溪瀑布: 대승폭포大勝瀑布) → 고사허(古寺墟: 한계사지寒溪寺址) → 한승운(韓承雲)의 집
9월 12일	한승운의 집 → 인제 → 만의역
9월 13일	만의역 → 계림촌(桂林村) → 홍천
9월 14일	홍천 → 낙수암(落水巖) → 창봉역(倉峯驛) → 수회촌(水回村)
9월 15일	수회촌 → 조곡진촌(鳥谷鎭村)
9월 16일	조곡진촌 → 지평 → 이호

19) 두 사람이 유람에 참여한 사실은 각주 12번 인용문 참조.

20) 홍태유와 홍익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洪泰猷, <送道遙子往遊嶺南序>, 『耐齋集』卷3, 56면 참조.

21) “同遊者, (….) 從姪李君振伯其字”(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卷3, 66면) 다만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振伯”은 그의 자이다. 그의 이름은 미상이다. 임적과 홍태유의 문집을 살펴본 결과 그는 주로 설악산 유람 관련 기록들에만 등장한다.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임적 일행은 대략 보름 일정으로 당시 거주지인 여주에서 출발해 지평[지금의 경기도 양평], 홍천, 인제 등을 거쳐 설악산에 들어가 그곳을 유람한 다음 다시 인제, 홍천, 지평 등을 거쳐 여주로 돌아왔다. 둘째, 그중 인제를 출발해 다시 인제로 돌아오기까지의 1주일 여정이 설악산 유람에 해당하는데, 그 여정에서 드러나듯이 임적 일행은 지금 내설악(內雪巖)이라 부르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유람했다.<sup>22)</sup>

이제 마지막으로 임적이 이 유람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현전하는 관련 작품은 다음과 같이 총 4편이다.

- <동유일기>
- <유삼연정사기>
- <한계폭포기>
- <낙수암기(落水巖記)>

<동유일기>는 전체 유람을 모두 담아낸 일록체(日錄體) 형식의 글이다. <유삼연정사기>와 <한계폭포기>는 설악산 유람 중 삼연정사와 한계폭포 방문 경험만을 다룬 글이다. <낙수암기>는 설악산 유람을 마치고 여주로 돌아가던 중 홍천 부근을 지나다 낙수암이라는 승경을 발견하고 지은 글이다.

삼연정사, 한계폭포, 낙수암은 모두 <동유일기>에도 등장한다. 이 세 승경은 당시 유람에서 임적이 가장 주목한 곳들로 보인다. 이에 임적은 <동유일기>에서 다루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별도의 독립된 작품을 창작해 이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듯하다.<sup>23)</sup>

### III. 새로운 승경에 대한 조명

임적은 여타의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기에서 유람 중 목도한 승

22) 이러한 사실은 유정열, 앞의 논문, 2020, 124면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23) 한편 홍태유의 문집에는 이 유람과 관련된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반면에 임적의 문집에는 이 유람과 관련된 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원래는 존재했으되 일실되었거나 문집 편찬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했을 수 있다.



경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노력했다. 예컨대 그는 내설악의 대표적 승경인 한계폭포[대승폭포]를 소재로 한 <한계폭포기>에서 계절적 요건 등으로 인해 폭포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장관을 목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되<sup>24)</sup> 당시 본 장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때마침 비가 막 내린 뒤라 물의 기세가 자못 장대하다. 폭포 물은 잘게 뿜어지며 잠깐 사이에도 천변만화(千變萬化)한다. 혹 중간에 두 갈래로 나뉘면 은하수가 온 하늘을 가득 채운 듯하고, 혹 합하여 하나가 되면 기다란 무지개가 공중을 가로지른 듯하고, 혹 바람이 불어 물이 흩날리면 얇은 안개가 벼랑을 둘러싼 듯하다. 그 모습이 기이하고 웅장하여 사람의 마음과 눈을 아찔하게 하니 실로 우리나라 제일의 장관이다.<sup>25)</sup>

그런데 사실 한계폭포의 경우 임적에 앞서 이미 몇몇 선배 문인들이 그들의 유기에서 그 승경을 묘사한 바 있다. 임적이 <한계폭포기>에서 폭포 부근 바위에 ‘구천은하(九天銀河)’라는 글자를 새긴 인물로 언급한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이 1689년 설악산 유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유곡연기(遊曲淵記)>에서 폭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 그 한 예이다.<sup>26)</sup>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계폭포에 대한 임적의 기록은 선배들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임적 유기의 특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임적은 당시까지

24) “從僧言：‘此未足爲壯也。方夏水大，直瀉于潭，朝日照而雙虹起，今則水已殘矣。舊或有好事者，積石壅上流，俟水盈而決之，瀑直瀉如夏時。’惜乎！余來不及夏，不能見水大之時，又從人力殘，不能積石壅水如好事者之爲，良可歎也。”(任適, <寒溪瀑布記>, 『老隱集』 卷2, 380면) 참고로 인공으로 장관을 연출한 사례가 문익성(文益成, 1526~1584)의 <유한계록(遊寒溪錄)>과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동정기(東征記)> 등에 보인다. 이 중 김창협의 사례는 허남욱, 앞의 논문, 349면을 통해 알게 되었다.

25) “時雨纔過，水勢頗壯。飛流噴碎，頃刻萬變。或中分二派，如銀河巨天；或合而爲一，如長虹橫空；或風吹散漫，如薄霧繞壁。意態奇壯，眩人心目，誠我東第一壯觀也。”(任適, <寒溪瀑布記>, 『老隱集』 卷2, 380면)

26) 관련 부분들을 각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東有巖，號紫烟臺，與瀑對起，遠僅百餘步，高減瀑三之一，可坐而望之。刻‘九天銀河’四字於臺之上，谷雲翁之筆云。”(任適, <寒溪瀑布記>, 『老隱集』 卷2, 380면); “越見瀑布，自北而來。左右蒼壁，無慮千百仞，飛流當中直下。曾有人下繩度其長，可數百丈。雨餘水勢，益壯噴沫，因風裊娜，如霞如霧，如絲如煙，頃刻萬變。”(金壽增, <遊曲淵記>, 『谷雲集』 卷4, 한국문집총간 125, 223면) 첫 번째 글의 “谷雲”은 김수증의 호이다.

제대로 또는 미처 조명되지 못한 승경들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임적 유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살펴볼 것은 <동유일기>에서 설악산의 십이폭동을 다룬 부분이다. 홍태유 또한 당시 유람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유설악기(遊雪嶽記)>에서 십이폭동을 다룬 바 있다.

십이폭동은 수렴동(水簾洞)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지금은 구곡담계곡이라 불리고 있다.<sup>27)</sup> 십이폭동과 수렴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계곡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폭포가 인상적인 곳이다. 사실 십이폭동에 처음 관심을 가진 이들은 김수증과 김창흡이다. 다만 김수증의 경우 1689년 한계폭포를 비롯한 내설악 승경들을 유람하며 십이폭동도 다녀오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sup>28)</sup> 김창흡의 경우 1692년부터 여러 차례 십이폭동을 다녀왔으나 1711년에 다녀오고 나서야 <유봉정기(遊鳳頂記)>를 통해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겼다.<sup>29)</sup>

<동유일기>와 <유설악기>의 정확한 창작 연도는 미상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임적과 홍태유가 유람을 다녀온 직후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sup>30)</sup> 그렇다면 십이폭동에 대한 관심은 장동 김씨 문인들로부터 시작되었으되, 그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임적과 홍태유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임적의 기록은 홍태유의 것과 더불어 십이폭동

27) 권혁진, 『설악인문기행』 1, 산책, 2016, 131~132면 참조.

28) 김수증의 당시 유람에 대해서는 金壽增, <遊曲淵記>, 『谷雲集』 卷4, 한국문집총간 125, 223~224면 참조.

29) “至於鳳頂及雙瀑，則以其絕險而難中宿，日力窘於直達，故除壬申一探外，始有昨年之踐，則其跡可謂疎矣。(…) 余素懶於筆札，五遊楓嶽，六年栖此，而曾未撰一遊記，被人提掇而亦不能強。今乃因興口占，使致也執筆寫去，持示于在洛諸子姪，俾知余老而愛山，於是乎興劇。而若其原本融峙，品題雲嵐，庶補碑版之闕遺，則欲登茲山者，持爲杖鞋之引亦可矣。辛卯九月重陽日，百淵洞主記。”(金昌翁, <遊鳳頂記>, 『三淵集』 拾遺 卷23, 한국문집총간 167, 108~109면) “壬申”은 1692년을, “辛卯”은 1711년을 가리킨다. 그리고 “致”는 당시 함께 유람한 김창흡의 아들 김치겸(金致謙)을 가리킨다.

30) <동유일기>의 창작 시기를 추정하는 데는 <낙수암기>가 단서를 제공한다. <낙수암기>는 “歲之秋，余入雪嶽”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任適, <落水巖記>, 『老隱集』 卷3, 380면). 여기서 “歲之秋”는 1709년 가을을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임적이 유람을 다녀온 그 해에 창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뒤에서 드러나겠지만 <낙수암기>는 <동유일기>의 내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것이다. 따라서 <동유일기>는 1709년 가을 혹은 겨울에는 창작되었을 것이다.

에 대한 초기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아울러 십이폭동을 다룬 부분에는 <동유일기>에 등장하는 그 어떤 승경보다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sup>31)</sup> 이를 통해 임적이 십이폭동에 상당히 매료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동유일기> 속 해당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7일. 아침을 먹고 나서 심원사를 출발했다. (...) 절에서부터 20여 리를 가자 폭포와 맑은 못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4개의 폭포가 서로 이어져 있는데 아래가 모두 못이다. 전후의 봉우리들이 설색(雪色)을 띠고 겹겹이 쌓여 있는데 기이하고도 기이했다.

폭포를 지나 스무 번 굽이돌자 십이폭동의 초입에 이르렀는데 수세(水勢)가 기이하고 장대하여 볼 만했다. 세 번째 폭포에 이르자 폭포가 매우 장대할 뿐만 아니라 사방은 설산이고 단풍과 전나무가 울창한데 화려하기가 비단 같아 마치 그림 속 풍경인 듯했다. 이는 실로 선경(仙境)이요 인간 세계가 아니니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이 맑아지고 속세의 일을 문득 잊게 했다.

이로부터 열한 번째 폭포에 이르기까지는 반석이 평평히 깔려 있고 물소리가 팔팔 세차며 풍경이 천변만화하는데 그 모습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열두 번째 폭포에 이르자 좌우의 두 개 폭포가 하나의 못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른쪽 폭포는 60여 장이고 왼쪽 폭포는 30여 장이다. 조화(造化)의 솜씨가 여기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문자로도 형용할 수 없고 그림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sup>32)</sup>

임적은, 인용문에서 심원사를 출발해 십이폭동으로 가는 도중 목도한 산수 풍광을 서곡처럼 제시한 다음, 십이폭동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이 중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세 번째 폭포를 다룬 두 번째 단락이다. 임적은, 여기서 폭포가 봉우리와 나무 같은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이른바 선경과도 같은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 단락은 이 구간을 다룬

31) 독립된 기문의 소재가 된 승경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보다 분량이 적다.

32) “七日, 朝食後, 發深源寺. (...) 自寺行二十餘里, 始得瀑布澄潭, 其中四潭相連, 下皆爲潭. 前後峯巒, 重疊如雪色, 奇哉奇哉. 過瀑布二十曲, 到十二瀑初頭, 水勢奇壯可觀. 到第三瀑, 不但瀑流甚壯, 四面雪山, 楓檜重重, 爛若錦繡, 恍然如畫裡景. 此誠仙境非人間, 使人意思清越, 頓忘塵世事也. 自此至十一瀑, 盤石平鋪, 水聲噴薄, 景態萬變, 不可盡述. 到十二瀑, 左右兩瀑, 落於一潭, 右瀑六十餘丈, 左瀑三十餘丈. 造化之功, 至此而極, 文字不能形言, 丹青不足模寫.”(任適, <東遊日記>, 『老隱集』卷3, 393년) “其中四潭相連”의 ‘潭’은 ‘瀑’의 오자가 아닐까 싶다.

대목 중 분량이 가장 많다. 서술 내용도 다른 부분에 비해 풍부하다. 이로 인해 세 번째 폭포가 십이폭동의 백미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십이폭동의 백미는 열두 번째 폭포이다. 따라서 이 폭포를 다룬 네 번째 단락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두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쌍폭’(雙瀑: 현재는 ‘쌍룡폭포’로 불림)이라 불렀던<sup>33)</sup> 이 폭포는 웅장함을 자랑한다. 이 웅장함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홍태유는 <유설악기>에서 “폭포와 떨어진 거리가 먼데도 흘날리는 물방울이 안개처럼 공중에 가득하여 사람의 옷자락을 적시고도 남는다”<sup>34)</sup>와 같은 폭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주는 직간접적인 묘사를 통해 그 웅장함을 표현해 냈다.

이와 달리 임적의 경우 특별한 묘사 없이 사실상 ‘형용불가’라는 말만으로 폭포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무성의한 기록 태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웅장한 대상을 목도할 경우 그 모습 앞에서 말을 잃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상황 자체를 서술함으로써 그 웅장함을 표현해 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는 산수를 소재로 한 시문에서 빼어난 승경을 표현할 때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sup>35)</sup> 요컨대 임적은 승경에 압도된 상황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활용해 그 웅장함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더욱 주목되는 작품은 <낙수암기>이다. 다음은 작품의 전문이다.

가을에 나는 설악산에 들어갔다가 십이폭포 등을 실컷 보고 10여일 만에 돌아오고 있었다. 홍천을 지나 남쪽으로 20리를 가자 낙수암에 이르렀다.

바위는 물속에 있는데 높이는 한 길쯤 되고 넓이는 배를 하나 깔아 놓은 정도다. 삼면이 가파르고 색이 몹시 희니 기이하고 사랑스러워 볼 만하다. 남쪽 산에서 오는 물이 바위 위를 거쳐 내려가며 칼칼 쏟아져 폭포가 된다. 폭포가 매우 짧은 하지만 수세는 심히 씩씩하다. 폭포 아래는 못을 이루고 있다. (못의 물이) 길푸른 색을 띠고 있어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아래로 흘러가며 점점 알아지고 맑아진다. 좌우에는 푸른 절벽이 폭포를 거느리고 있다. 길이는 각기 10여보

33) 권혁진, 같은 책, 168면 참조.

34) “去瀑遠, 飛沫淒淒, 漫空霧靄, 尙能潤人衣裾.”(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卷3, 66면) 번역은 유정열, 앞의 논문, 2020, 133면의 것을 가져왔다.

35) 우리나라 초기 유기의 대표작인 이곡(李穀, 1298~1351)의 <동유기(東遊記)> 중 “所見此山, 實驗所聞, 雖畫師之巧, 詩人之能, 不可得其形容之髣髴也”와 같은 구절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李穀, <東遊記>, 『稼亭集』卷5, 한국문집총간 3, 130면) “此山”은 금강산을 가리킨다.

썸 되고 높이는 여러 길인데 굽은 채 층을 이루며 겹쳐진 것이 병풍 같기도 하고 책꽂이 같기도 하다. 단풍과 잡초가 그 위에서 뒤섞여 자라고 있어 깨끗하고도 그윽하니 진실로 빼어난 볼거리다. 폭포와 절벽을 설악동 속에 놓더라도 하나의 승경으로서 이른바 십이폭포와도 나란히 둘 수 있겠는데 그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아름다운 산수는 궁벽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보지 못해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다. 이 바위의 경우 궁벽한 협지가 아닌 길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매일 그 앞을 왕래하여 이름나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이상하지 않은가. 어쩌면 너무 드러난 곳에 있어 사람들이 항상 보기 때문에 특이하다 여기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유독 이 바위만 기이하고 바위 앞뒤로 덧붙어 알려질 만한 아름다운 산과 웅장한 폭포가 없기 때문인가? 일단 기록해 두고 이곳을 지날 후인들에게 묻겠노라.<sup>36)</sup>

인용문에 따르면 홍천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낙수암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승경이었던 듯하다. 이 때문인지 동일한 대상을 다룬 작품의 예를 다른 문헌들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명확하게 동일한 대상을 다룬 작품의 예로는 홍태유의 시 한 편 정도를 꼽을 수 있다.<sup>37)</sup> 심지어 지금도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미상이다.<sup>38)</sup>

첫 번째 단락에서 낙수암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한 임적은 두 번째 단락에서 낙수암을 제법 상세하게 묘사한다. 그리하여 일단 물속에 어느 정도 잠긴 채 세하얀 빛을 띠고 있는 것과 같은 바위의 전반적 모습과 이름에 상응하게 바위가 인근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이며 폭포를 만들어 내는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나무와 풀 같은 자연물을 포용하며 그들과 공존하

36) “歲之秋，余入雪巖，飢餓十二諸瀑，十餘日而歸，過洪川而南行二十里，至落水巖。巖在水中，高丈餘，廣可布一席，三面斗絕，色甚白，奇愛可觀。水之自南山來者，由石上而下，噴薄爲瀑。瀑甚短而水勢甚壯。瀑下爲潭，色甚綠，不見其底，下流漸淺而澄。左右有蒼壁擁瀑，袤各十餘步，高數丈，曲折層疊，如屏風如書架。楓樹雜草，羅生於上，蕭灑幽邃，眞勝觀也。使瀑與壁若在雪巖洞中，猶足爲一曲之勝，而與所謂十二瀑者并列，然寂寥無名稱，何也？大凡佳山水，多在窮深極絕之地，人不能見而因以無名於世。若此巖在路傍，無窮絕之險，而人日以往來於前，宜有名而無名焉者，豈不異哉。豈地太淺，人常見而因不以爲異耶？抑此巖獨奇爾，巖前後，無佳山壯瀑可附而名者耶？姑錄之，將以問後人之過此者。”(任適，〈落水巖記〉，《老隱集》卷3，380면)

37) 참고로 해당 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入洞忽狀清，溪流自何處。佳境疑有之，恨未窮源去。”(洪泰飮，〈落水巖〉，《耐齋集》卷1，24면)

38) 다만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있는 층층 절벽의 모습과 같은 낙수암 주변의 풍광 또한 묘사하고 있다.

“폭포가 매우 짧”이라는 언급을 볼 때 사실 낙수암은 설악산의 쌍폭처럼 웅장함을 자랑하는 승경은 아닌 듯하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임적의 묘사를 보면 낙수암과 그 주변 산수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광들이 꼭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이를 통해 임적이 낙수암을 아기자기한 맛을 지닌 승경으로 부각시키려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임적은 이후 낙수암이 설악산 십이폭포에 뒤지지 않는 승경이라 평가한 다음 이 승경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문을 던지며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다. 여기서 앞부분의 평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평가에는 낙수암이 십이폭동의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만한 승경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낙수암이 하나의 어엿한 승경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임적이 그간 주목받지 못한 산수를 새로운 승경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 작품을 창작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동유일기>에서 “낙수암에 들었는데 좌우의 푸른 절벽이 매우 빼어나다. 중간의 반석 같은 바위가 높다랗게 솟아 있는데 물이 그 위를 거쳐 작은 폭포를 만들어 내니 깨끗하여 볼 만하다. 설악산에 놓더라도 하나의 승경이 되기에 족하다”라고 기록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작품을 별도로 창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sup>39)</sup>

한편 앞서 던진 의문에 대한 임적 나름의 답을 내놓은 세 번째 단락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임적은 여기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낙수암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추정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그 중 “어쩌면 너무 드러난 곳에 있어 사람들이 항상 보기 때문에 특이하다 여기지 않는 것인가”라는 첫 번째 추정은 ‘승경이란 어떻게 탄생하는가’라는 측면에서 흥미해 볼 가치가 있다. 이 말은 달리 생각해 보면 ‘승경이란 꼭 심산유곡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애정 어린 시선만 갖추면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식의 맹점으로 인해 훌륭한 승경이 도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존재와 가치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요컨대 이 작품은 ‘승경’이라는 존재에 대한

39) “過落水巖，左右蒼壁甚妙。中間盤石斗高，水由其上，爲小瀑，蕭灑可觀。雖在雪嶽，亦足爲一曲之勝矣。”(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卷3, 395년)

임적 나름의 깨달음도 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임적의 깨달음을 이미 실천한 선배 문인들이 있었다. 그 한 예로는 장동 김씨 문인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주지 주변 산수에 관심을 갖고 그곳을 유람했으며 그 경험을 유기로 창작하기도 했다.<sup>40)</sup> 예컨대 곡운(谷雲)에 은거 중이던 김수증은 1677년 곡운에서 서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승경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노닐고 그곳에 ‘칠선동(七仙洞)’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뒤 <칠선동기(七仙洞記)>를 창작한 바 있다.<sup>41)</sup> 크게 보면 <낙수암기>의 창작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산수를 조명하려 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여기서 낙수암이 임적 거주지 주변의 산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낙수암기>는 기존의 흐름이 더욱 광범위한 또는 일반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IV. 승경의 문화적 가치 부각

앞서 설명했듯이 임적은 설악산 유람 중 삼연정사를 방문했으며, 관련 기록을 남겼다. 이는 홍태유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삼연정사를 방문한 점,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기록을 남긴 점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왜 그러한가?

훗날 영시암이라 불린 이 정사가 완공된 것은 1709년 9월경이다.<sup>42)</sup> 두 사람이 설악산을 유람한 것도 당해 9월이다. 즉 이 정사는 두 사람이 유람을 떠나기 직전에 완공되었던 것이다. 임적이 <동유일기>에서 이 정사를 ‘김삼연신사(金三淵新舍)’라 칭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sup>43)</sup> 이러한 점에서 두 사람의 방문은 완공 이후 첫 외부인 방문일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기록들은 이곳에 대한 외부인의 첫 기록일 수 있다.

여기서는 임적의 삼연정사에 대한 기록, 그중에서도 <유삼연정사기>를 고

40) 장동 김씨 문인들의 이러한 면모에 대해서는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鄭敎과 農淵 그룹을 중심으로』, 일지사, 2001, 154~155면 참조.

41) 金壽增, <七仙洞記>, 『谷雲集』 卷4, 한국문집총간 125, 200~201면.

42) 이승수, 앞의 책, 213면 참조.

43) “行十餘里, 到金三淵新舍.”(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卷3, 394면)

찰함으로써 임적 유기의 특징을 더욱 풍성하게 밝히고자 한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번다함을 무릅쓰고 작품의 전문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이름난 산수를 구하여 오두막을 짓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직물, 곡식, 수산물과 같은 물산이 없는데다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항상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면 비록 기이하고 특별한 경관이 있더라도 거주하지 않는다. 반드시 직물, 곡식, 수산물과 같은 물산이 있는 동시에 한양이 가까워서 항상 왕래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산이 매우 기이하지 않고 물이 매우 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두막을 짓고 거주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산수가) 잠시 동안의 관심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후의 자손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자가 대체로 모두 이리하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빼어난 산수를 즐기는 자가 아니다. 사후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산수를 즐기는 자는 나의 소견으로 볼 때 삼연자(三淵子: 김창흡) 한 사람뿐이다.

내가 이호(梨湖)에서 나흘 걸려 설악동 어귀에 이르렀는데 길이 몹시 험난하여 말과 수레로 다닐 수 없어 말을 버리고 30리를 가니 심원사가 나왔다. 또 5리를 가자 비로소 삼연자의 정사에 도착했다. 무릇 사찰은 멀고 외진 곳에 있는데 지금 이 정사는 사찰보다 5리 더 깊은 곳에 있으니 이곳의 멀고 외짐을 알 만하다.

정사는 모두 12칸이고 중간에 하나의 큰 방을 만들어 놓았다. 방 속에는 또다시 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휴식의 장소이다. 방의 북쪽에는 1칸짜리 작은 누각을 만들어 놓았는데 산수를 조망하고 완상하는 장소이다. 바위 봉우리가 누각을 마주해 일어나 있다. 봉우리는 모두 가파르면서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이 새가 우러러 보는 듯하고 짐승이 웅크린 듯하며 사람들이 잇달아 걸어가는 듯한데, 그 빛이 눈이 쌓인 듯 맑고 깨끗하다. 큰 내가 누각을 돌아 지나가는데 거센 물살이 바위를 때리며 내는 철썹철썹하는 소리가 들을 만했다. 설악산 주변 100리 안에서, 거주할 만한 고요하고 깊숙한 지세와 불 만한 기절찬 산수를 갖춘 곳으로는 정사가 으뜸이다.

그러나 산이 매우 험난하여 직물 같은 물산 및 곡식의 이로움이 없고, 물은 모두 석천(石泉)이라 수산물 음식이 없다. 한양과 떨어진 거리도 300여 리인데다가 비탈길과 좁은 잔도를 말미 지나갈 수도 없다. 장마철에 비라도 한 번 내리면 길이 끊겨버려 사람마저 다닐 수 없게 된다. 만일 세상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정말 하루도 거주할 수 없을 것이다. 승려가 말했다. “삼연자는 이곳에 거주하며 거친 밥과 나물국을 먹고 있습니다. 혹 그조차 먹지 못해도 하루 종일 작은 누각에 앉아 산을 보고 시를 읊조리며 혼연히 즐거워하면서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과연



이와 같다면 어찌 참으로 산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삼연자는 이미 연로했다. 이후로 100여 년이 지나 사람들이 그 뒤를 잊지 못한다면 무너진 지붕과 담장이 덩굴로 뒤덮일 것이고, 산승이 그것을 가리키며 “이곳은 삼연자가 거주하던 정사의 옛터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아, 설악산에 훌륭한 자취를 남겨 후인으로 하여금 천 백년 후에 비분하고 감탄하게 할 사람은 삼연자일 것이다!<sup>44)</sup>

일단 주목되는 것은 삼연정사 주변 산수에 대한 묘사이다. 임적은 세 번째 단락에서 삼연정사 북쪽 누각에 올라 둘러본 봉우리들과 시내를 묘사하고 있다. 그중 특히 눈여겨 볼 것은 봉우리들에 대한 묘사이다. 임적은 묘사의 과정에서 비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새가 우러러 보는 듯하고 짐승이 웅크린 듯하며 사람들이 잇달아 걸어가는 듯한데”(如鳥仰如獸俛, 如人之纍纍而行)라고 하여 봉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각각 각색의 모습을 비유의 병렬을 통해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병렬의 과정에서 구법 또한 일정한 변화를 줌으로써 그 각각각색의 모습이 한층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그 빛깔이 눈이 쌓인 듯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여 봉우리의 빛깔을 눈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새하얀 암봉이 많은 설악산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적합한 비유로 볼 수 있다.<sup>45)</sup> 이러한 묘사들이 삽입된 점을 볼 때 임적은 일단 삼연정사를

44) “人之求名山水而廬者, 余多見之矣. 然無布帛穀粟魚蟹之產以爲生, 遠於京城, 而不可以常往來, 則雖有奇怪絕特之境, 不居焉. 必有布帛穀粟魚蟹之產, 必近於京城, 而可以常往來者, 然後山不甚奇, 水不甚清, 然而廬而居之, 不止爲一時寓日之所而已. 蓋將爲身後子孫之計者, 往往皆是也. 若此者, 非真有樂於山水之勝者也. 不爲身後之計, 而有山水之樂者, 以余所見, 惟三淵子一人而已. 余自梨湖行四日, 至雪嶽洞口, 路險絕, 不可以通輿馬, 捨馬行三十里, 有深源寺. 又五里, 始得三淵子精舍. 凡寺刹必在幽絕地, 今精舍深於寺又五里, 幽絕可知也. 舍凡十二間, 中爲一大房. 房中又爲重房, 爲宴息之所. 房之北, 作小樓一間, 爲登望遊賞之所. 有石峯對樓而起, 峯皆峻峻缺隙, 如鳥仰如獸俛, 如人之纍纍而行, 而色甚皎潔如積雪. 大川繞樓而過, 湍瀾激石, 澎湃可聽. 周雪嶽百里之內, 地之幽邃可居, 與山水之奇絕可觀者, 精舍爲第一也. 然山甚險, 無布帛之產, 穀粟之利, 水皆石泉, 無魚蟹之味. 遠京城又三百有餘里, 而危磴細棧, 馬不能行, 春夏之時, 一有雨, 路絕人亦不得通. 苟有世念者, 誠不能一日居也. 聞僧言: ‘三淵子居此時, 蔬食菜羹, 或不能繼, 而日惟坐小樓, 看山詠詩, 欣然樂而不知疲.’ 果若此, 豈非真有樂於山水者耶. 三淵子已老矣. 此後百餘年, 人不能繼其後, 則破屋頽垣, 蔓草蒙翳, 山僧指之言曰: ‘此三淵子之舊址.’ 嗟乎, 留勝跡於雪嶽之中, 而使後人悲慨感歎於千百年之下者, 其將三淵子歟!”(任適, <遊三淵精舍記>, 『老隱集』卷3, 379~380면)

45) 실제로 ‘설악산’이라는 명칭은 다음 인용문의 두 번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특징 때문에

설악산에 거주하며 그 산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부각시키려 한 듯하다.<sup>46)</sup>

<동유일기>에도 이 단락과 대동소이한 묘사와 내용이 담겨 있다.<sup>47)</sup> 그런 데 <유삼연정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임적이 김창흡이라는 당대의 걸출한 인물이 이곳에 자리잡고 살고 있음을 강조한 사실이다. 임적은 김창흡이 순전히 아름다운 산수를 누리기 위해 생계를 위한 물산을 조달하기 어렵고 한양에 오가기도 어려운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내놓고 있다.<sup>48)</sup> 즉 김창흡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며 산수를 누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진정으로 산수를 애호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김창흡이 음식 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산수 완상 등에 몰두했다는 승려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요컨대 임적은 김창흡을 무조건적인 산수 애호를 실천하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그 면모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김창흡의 고사(高士)적 면모를 예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임적은 삼연정사를 설악산에 거주하며 그곳의 산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승경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넘어, ‘김창흡의 탈속적 정신이 깃들어 있는

붙여진 것이기도 하다: “仲秋始雪, 仲夏雪消, 故曰雪巖。又其巖巒石色, 潔白如雪, 故亦曰雪巖。”(李萬敷, <雪巖>, 『地行附錄』, 『息山先生別集』 卷4, 한국문집총간 179, 86면)

46) 앞서 <동유일기>의 십이폭동을 다룬 부분에서도 “前後峯巒, 重疊如雪色”이나 “四面雪山”과 같은 비슷한 대목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설악산 봉우리를 다룬 임적의 기록 가운데 백미로는 단연 <유삼연정사기>의 이 대목을 꼽을 수 있다.

47) 참고로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行十餘里, 到金三淵新舍, 坐於北樓。樓前有石峯屹立, 色如積雪, 峯形甚奇, 有如鬢髻者, 有如人立者, 千形萬象, 不可盡狀。同行有曾見金剛山者以爲如坐正陽寺, 望衆香城云。東邊一箭之地, 有高崗突起成臺, 登而望之, 南北諸山, 皆在眼中。自鳳頂以下, 眼界清爽, 地勢幽邃可居者, 無過此矣。”(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卷3, 395면)

48) 다만 이러한 임적의 생각은 후대 문인들이 김창흡의 설악산 은거 이유를 부친 김수항(金壽恒)이 당과 같등에 희생된 일로 인해 당대 정치 현실에 염증을 느낀 정치사적·개인사적 배경과 연결 지어 이해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임적 이후 김창흡의 은거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先生自少有奇志, 而好遊名山水, 足跡遍國中, 獨以雪巖多峰壁, 潭瀑之勝, 而其蘊奇不見, 又有類乎隱者, 故最心樂之云。先生既遭己巳大禍, 益無意於世。及乙酉終內憂, 遂携書入雪巖之曲百潭三歲, 始起精舍於碧雲寺側, 已而燬。己丑, 又轉入寺東可數里直朝元峰之南, 爲板屋九楹, 常處其中, 所謂永矢庵是也。”(金元行, <三淵先生永矢庵遺墟碑>, 『溪湖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20, 327면) “己巳大禍”는 1689년 김수항이 기사환국(己巳換局)의 여파로 인해 사사된 일을, “乙酉終內憂”는 1705년 모친 안정나씨(安定羅氏)의 상을 마친 일을 가리킨다.

장소'로서도 부각시키고자 했다고 판단된다. 즉 대상에 정신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삼연정사를 문화적 가치까지 지닌 승경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임적의 유기에는 해당 승경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까지 부각시키려는 노력 또한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 잠시 삼연정사 주변에 대한 산수 묘사를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중 봉우리의 빛깔이 “눈이 쌓인 듯 맑고 깨끗하다”라는 묘사는 청정무구함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고결한 이미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봉우리에 대한 묘사는 임적이 부각시키고자한 정사의 두 가지 면모와 모두 연결되는 면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거센 물살이 바위를 때리며 내는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들을 만했다”라는 시내 묘사는 기본적으로 시원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거니와 그 거센 물살이 세속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줄 것만 같은 탈속적 이미지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임적은 자신이 부각시키고자 한 정사의 두 가지 면모를 모두 고려하며 산수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홍태유 또한 <유설악기>에서 정사 주변 봉우리들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묘사한 다음, “(봉우리들은) 빛이 희고 깨끗한데 달 밝은 밤 같기도 하고 싸락눈 내린 아침 같기도 하여 속세의 기운이 일점도 없으니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이도 고사임을 알겠다”라고 하여 정사 주변 산수에 탈속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김창흡을 고사로 높이기도 했다.<sup>49)</sup> 그렇기는 하되 홍태유의 행위를 임적의 그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태유가 이 간단한 발언만 하고 넘어간 것과 달리 임적은 정사에 대한 독립적인 작품까지 창작하고 그 속에서 적극적인 의론을 펼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정사를 문화적 가치까지 지닌 승경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한편 임적이 마지막 단락에서 삼연정사의 운명을 예측한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임적은 일단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삼연정사가 추후 김창흡을 계승할 인물의 부재로 인해 폐허로 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과 별개로 김창흡의 자취로 인해 후대 문인들의 방문만은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예측을 내놓고

49) “色又皎潔，如明月之夜，如微霞之朝，無一點塵埃氣，得此而居者，亦知爲高人也。”(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卷3, 65면)

있다. 둘 중 후자는 특히 주목을 요한다. 이 문장에는 후대의 문인들 또한 삼연정사를 ‘김창흡의 탈속적 정신이 깃들여 있는 장소’로서 높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화되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임적의 방문 이후 삼연정사가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해 갔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기록들은 임적 이후 삼연정사를 방문한 문인들의 것이다.

① 암자 동쪽에는 높은 언덕이 있다. 언덕의 동쪽 면은 가파른 벼랑으로 높이가 오륙십 길은 될 듯하며, 시냇물이 그 기슭을 감싸 흐르고 있다. 정자 하나를 언덕 위에 새로 지었는데 농환정(弄丸亭)이라 한다. 정자는 암자로부터 백 걸음 정도 떨어져 있다. (...) 암자에서 서남쪽으로 이백 걸음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에 정자를 두었는데 무청정(茂淸亭)이라 한다.<sup>50)</sup>

② 영시암 유허(遺墟)에 도착해 배회하며 비(碑)를 들었다. 비는 현감 이광구(李廣矩)가 세운 것이다. 감사 홍봉조(洪鳳祚)가 비문을 썼는데 그 뒷면의 내용에 따르면 삼연거사(三淵居士)가 이 암자에 살았다고 한다. 암자의 터는 평온하여 시야가 탁 트이면서도 맑고 고와 사랑스럽다. (...) 봉우리와 수석(水石)의 이름을 그가 명명한 것이 많은데 전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sup>51)</sup>

③ 내가 외직을 맡고 있던 중 설악산에 들어갔을 때 영시암이라는 곳에서 쉬었는데 그곳은 선생이 6년 동안 은거했던 곳이다. 암자는 이미 선생의 옛 것이 아니었지만 봉우리와 벼랑의 우뚝함과 수석의 맑고 씩씩함을 통해 (선생의) 높은 품격을 굽어보고 우러리보노라니 감개하여 탄식이 나왔다.<sup>52)</sup>

먼저 ①은 김창흡의 동생인 김창즙(金昌緝, 1662~1713)의 기록으로 1712

50) “菴東有高岡，岡東面崖壁峻削，高可五六十丈。溪水環其趾，新建一亭于岡上，謂之弄丸亭，距菴可百步。(...)自菴西南上二百步許置亭，謂之茂淸亭。”(金昌緝，〈東游記〉，『圃陰集』卷6，한국문집총간 176, 459면)

51) “到永矢菴遺墟，徘徊繞碑。碑卽縣監李廣矩所豎，監司洪鳳祚識，其後三淵居士曾居此菴云。菴址平穩，開廣眼界，亦明媚可愛。(...)峯巒水石之稱，多其所命，不能悉記。”(李福源，〈雪嶽往還日記〉，『雙溪遺稿』卷10，한국문집총간 237, 225면)

52) “余於原隰之暇，入雪嶽，慰所謂永矢菴者，卽先生六年棲隱之地也。菴已非先生之故，而卽其峰壁之雄拔，水石之淸壯，俛仰高風，慨然太息。”(金鍾正，〈書三淵金先生筆蹟後〉，『雲溪漫稿』卷7，한국문집총간 속 86, 151면)

년 삼연정사를 방문했던 경험을 담고 있다. 이 기록은 정사의 규모가 일정 기간 동안 농환정과 무청정 같은 건물의 건립 등을 통해 확장되어간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삼연정사의 운명은 1714년 김창흡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설악산 은거를 마침으로써 급변하게 된다. 이후 정사는 빈 채로 남겨져 폐허로 변해갔기 때문이다.<sup>53)</sup>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재현감 이광구가 1749년 김창흡을 추모하기 위해 ‘삼연선생 영시암 유허비(三淵先生永矢菴遺墟碑)’를 건립한다.<sup>54)</sup> 1760년에는 승려 설정(雪淨)이 옛 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사를 새롭게 건립하기도 한다.<sup>55)</sup>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사(또는 정사 터)는 설악산 유람을 온 후배 문인들이 찾아와 김창흡의 자취를 더듬는 장소로서 자리매김해 갔다. 이상의 사실은 1753년 방문한 이복원(李福源, 1719~1792)의 기록 ②와 1770년대 무렵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종정(金鍾正, 1722~1787)의 기록 ③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56)</sup>

이처럼 위 기록들을 통해 삼연정사가 부침을 겪기는 했으며 김창흡을 기리는 장소로서 자리매김해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57)</sup> 이는 임적의 생각이 사실상 후대에 현실화되었음을 알려준다.<sup>58)</sup> 이러한 점에서 <유삼연정사기>는 삼연정사가 산수미 외에 일종의 문화적 가치까지 간직한 승경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에서 그 시작점 역할을 한 작품으로서 기억될 필요가 있다.

53)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김창흡의 시중을 들던 최춘금(崔春金)이 호환(虎患)을 당한 일이다. 김창흡이 설악산 은거를 끝내게 된 전말에 대해서는 이승수, 앞의 책, 271~272면 참조.

54) 유허비의 건립 경위에 대해서는 金元行, <三淵先生永矢菴遺墟碑>, 『漢湖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20, 327~328면 참조.

55) 새로운 정사의 건립 경위와 그 위치에 대해서는 권혁진, 앞의 책, 112면; 李義肅, <永矢庵記>, 『頤齋集』 卷4, 한국문집총간 속 93, 618면 참조.

56) 김종정은 1771년 6월 강원감사에 제수된바(『承政院日記』 英祖 47년(1771) 6월 6일 기사 참조), 그의 정사 방문은 강원감사 재직 시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7) 삼연정사가 후대 문인들의 방문으로 인해 김창흡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간 사실은 김풍기, 앞의 논문, 355면; 이경수,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설악산의 심상(心象): 삼연 김창흡과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32집, 한국시가학회, 2012, 82~83면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58) 이승수, 앞의 책, 207면에서는 삼연정사가 ‘은자 김창흡의 표상’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V. 마치는 글

지금까지 본고는 임적의 생애를 산수유람에 초점을 맞춰 살펴 본 뒤, 1709년 유람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적 유기의 특징을 고찰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이종사촌 형 홍태유의 영향으로 산수유람에 관심을 갖게 된 임적이 홍태유의 제안 및 김창흡의 은거지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1709년 가을 설악산 등지를 유람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관련 작품들을 고찰한 결과, 첫째로 임적이 설악산 십이폭동과 홍천 부근에 있는 낙수암처럼 당시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곳의 경우 그것들이 간직한 산수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로 막 건립되어 아직 조명되지 못한 삼연정사[영시암]의 경우 산수미는 물론 문화적 가치까지 갖춘 승경으로 부각시키려 노력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본고는 임적의 문학에 대한 첫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임적의 문학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추후 유기 이외에 다른 작품들로 연구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론 등에서 언급한 바 있는 <축성의>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조선 후기 문인의 축성 의식 내지 국방 의식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金壽增, 『谷雲集』, 한국문집총간 125.  
金元行, 『溪湖集』, 한국문집총간 220.  
金鍾正, 『雲溪漫稿』, 한국문집총간 속 86.  
金昌緝, 『圃陰集』, 한국문집총간 176.  
金昌翁, 『三淵集』, 한국문집총간 167.  
李 穀, 『稼亭集』, 한국문집총간 3.  
李奎象, 『18세기 조선 인물지: 并世才彥錄』, 창작과비평사, 1997.  
李萬敷, 『息山集』, 한국문집총간 179.  
李福源, 『雙溪遺稿』, 한국문집총간 237.  
李義肅, 『頤齋集』, 한국문집총간 속 93.  
任聖周, 『鹿門集』, 한국문집총간 228.  
任 適, 『老隱集』, 한국문집총간 속 66.  
洪泰猷, 『耐齋集』, 한국문집총간 187.

### 『承政院日記』

권혁진 · 홍하일 · 최병현 · 허남욱 편역, 『조선 선비, 설악에 들다』, 문자향, 2015.

### 2. 단행본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鄭澈과 農淵 그룹을 중심으로』, 일지사, 2001.  
권혁진, 『설악인문기행』 1, 산책, 2016.  
이승수, 『三淵 金昌翁 研究』, 이화문화출판사, 1998.

### 3. 논문

- 김세호, 『설악산 십이폭포를 찾아서』, 『문헌과 해석』 제83집, 태학사, 2018, 46~62면.  
\_\_\_\_\_, 『조선시대 설악산 대승폭포의 문화사』, 『인문과학연구』 제6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7~30면.  
김풍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의 구성과 탄생: 설악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1집, 동아시아고대회, 2013, 333~363면.  
유정열, 『耐齋 洪泰猷 산문의 주제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184집, 한국어문교육연

- 구회, 2019, 351~378면.
- \_\_\_\_\_, 『홍태유(洪泰猷)의 <유설악기(遊雪嶽記)> 연구』, 『국문학연구』 제41호, 국문학회, 2020, 119~144면.
- 이경수,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설악산의 심상(心象): 삼연 김창흡과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32집, 한국시가학회, 2012, 67~99면.
- \_\_\_\_\_, 『설악산 대승폭포의 한시 표현』, 『인문과학연구』 제6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31~59면.
- 허남욱, 『조선시대 雪嶽山 遊山記의 개괄적 검토』, 『한문고전연구』 제30집, 한문고전학회, 2015, 335~364면.



## A Study on Noeun Im, Jeok's Travelog

- Based on the 1709 Tour-related Works -

Yu, Jeong-yeol

This paper focused on the literature of Im, jeok, which has not been fully illuminated yet, based on the 1709 tour. He became interested in a landscape tour under the influence of his cousin Hong, Tae-Yu. Hong, Tae-yu's proposal and Kim, Chang-hup's newly built a new house seem to have led Im, jeok to a tour of Mt. Seorak and other areas in the fall of 1709.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ed works, it was able to reveal that Im, jeok's travelog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m, jeok tried to promote the beauty of the mountain, which was never illuminated before, such as Sibipokdong at Mt. Seorak and Naksuam nearby Hongcheon. Second, it tried to highlight a beautiful scenery with its cultural value and landscape beauty; in the case of Samyeonjeongsa, which has just been built and has yet to be illuminated on the Im, Jeok's works.

keywords: Im, Jeok, Mt. Seorak, Sibipokdong, Naksuam, Samyeonjeongsa(Yeongsiam),  
Hong, Tae-yu

접수일자: 2020. 9. 30.

심사기간: 2020. 10. 1.~2020. 11. 10.

게재결정: 2020. 11. 10.